

청년세대의 일-삶 균형 수준과 행복 요인: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한 다국가 비교*

Factors of the Happiness of Youth Generations by Work-Life Balance: A Cross-National
Comparison Utilizing the Better Life Index and World Value Survey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 수 박미석**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초빙대우교수 김미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 수 김경아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초빙대우교수 전지원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Park, Mee Sok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vited Teaching Professor Kim, Mi Young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Kim, Kyoung-A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vited Teaching Professor Chun, JeeW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본 논문은 2018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박미석(msp@sookmyung.ac.kr)

*** 교신저자: 김미영(snow1205@naver.com)

〈Abstract〉

This study aimed for in-depth observation of the status quo of the youth generation's happiness utilizing the Better Life Index and the World Value Survey. To serve this purpose, the study selected 11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member countries (Australia, Estonia, Germany, Japan, Korea, Mexico, New Zealand, Poland, Sweden, Turkey, United States) that overlapped with the subject countries of the World Value Survey. The results of the observation first revealed that among the work-life balance levels of youth generations from across the 11 studied countries, the level for Korean youth was in a very poor state. Second, the happiness level of Korean youth also sat among the bottom ranks, with the aspects of politics, friendship, and career casting a heavy influence on importance to life; specifically, the youth generations of Turkey and Germany showed high levels of life purpose, while Korean youth displayed outstanding results in the challenge aspect. The third finding of this study reported that family, religion, power, benevolence, and challenge were commonly related to the happiness level of youth generations in countries with a higher work-life bal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much needed attention and support for improving the happiness level of the Korean youth generation, who will eventually play the leading role in our future society.

Key Words : 청년세대 (youth generation), 더 나은 삶의 지수 (Better Life Index),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 Survey), 일-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행복 (happiness)

I. 서론

오늘날 청년세대의 삶과 관련하여 많은 지표들은 긍정적 측면보다는 어려운 상황들을 대변하는 수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엿볼 수 있다. 실제 청년빈곤, 청년실업, 청년 무직자를 의미하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은 오늘날의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대표적인 모습들로서, 지속적인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세대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업이었던 직업준비나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등이 고군분투해야 하거나 자포자기해버리는 일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청년정책의 대상이나 지원범위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왔고, 최근에는 고용 정책으로 치우쳤던 기존의 접근에서 보다 다각적이고 장기적

인 정책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문길·이주미, 2017). 그러한 맥락에서 고용, 주거,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영역뿐 아니라 보다 상위의 삶의 욕구인 행복이나 주관적 안녕 등도 청년세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김지경, 2018; 이해정·유규창, 2013; Gröpel & Kuhl, 2009). 청년세대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그것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양하게 규명해왔는데, 성별, 연령,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적 요인,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내적 심리상태와 사회구조적인 맥락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청년세대의 삶에 대한 인식이나 삶의 불안정성 등의 요인 등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졌다(김지경, 2018; 이명숙, 2015; 한승현·임다혜·강민아, 2017). 그러나 청년세대의 삶에 대한 주관적 차원인 삶의 만족도, 행복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많이 이루어

어지지 않았고, 청년세대의 삶에 대한 영향요인이 병렬적으로 제시되거나 경제적 자원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영향요인과 연구방법 등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한승헌 외, 2017). 청년세대의 행복에 대해 연구한 이명숙(2015) 역시 개인의 심리내적 과정을 통해 평가하게 되는 행복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욕구, 동기 등의 개인심리적 요인들을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고, 그러한 행복 수준은 문화권마다 갖는 고유한 특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접근방식 차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국가 간 비교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하였을 때 청년세대의 행복은 그들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특히 이러한 요인은 그들이 속한 환경적 맥락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세대가 속한 국가를 분석 단위로 하여 그들의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상황 위에서 청년세대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한 서문기(2015)에 따르면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것은 개별 사례가 갖는 특수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더 나아가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차원의 분석은 사회구성원의 반응과 맥락이라는 주관적 차원을 반영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Aboim(2010) 역시 다국가 비교는 개별국가의 가치관 수준을 보다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청년세대의 행복 요인인 주관적 요인의 다국가 비교의 의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삼아, 본 연구는 청년세대가 속한 객관적 상황을 일-삶 균형 수준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청년 세대의 일-삶 균형 수준으로 국가를 구분하여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중심의 주관적 요인을 국제비교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세대는 일, 이상, 과정, 집단과 대치되는 여가, 현실, 결과, 개인

등의 가치를 선호한다고 파악되고 있는 바(김형주·임지연·유설희, 2018), 이러한 가치관은 개인이 형성하는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Fischer & Boer, 2016)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정선영, 2016).

한편 본 연구에서 청년세대가 처한 객관적 상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삶의 균형은 아직까지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복잡한 현상으로, 행복이나 주관적 안녕 등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로 접근이 되거나 다양한 삶의 영역을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결과물로 개념화되고 있다(손현일·권혁기, 2018).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이나 개인이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영향으로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다(Hakansson & Matuska, 2010). 지금까지의 일-삶의 균형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일을 중심으로 한 생활시간구조가 주로 활용되면서 필수적인 개인유지시간과 같은 여타의 생활영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양한 대상의 생활 균형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김진욱·고은주, 2015; 전지원, 2017). Leslie, King & Clair(2019)는 기존의 일과 삶이라는 두 영역의 관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서 벗어나 일과 삶 균형의 주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일-삶 균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과 삶의 만족에서 세대가 갖는 상호작용효과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연구되면서(이재완·강혜진, 2018; 이해정·유규창, 2013), 일-삶 균형에서 청년 세대의 코호트적인 속성이 일부 확인되었다. 또한 손영미와 박정열(2015)은 일-삶 균형에 대한 인과적 변인의 범위를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확장시킴으로써 문화와 국가가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삶 균형의 가치 차이

의 원인을 대상별 시간 구조와 삶의 만족 관계 사이에서 찾아보거나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활용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변인 연구 등이 후속적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유용성이 검증되어 온 국제 지표인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도구로 활용하여 청년세대의 행복 수준을 일·삶 균형과의 관계 속에서 입체적이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개발된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는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지표인 GDP가 갖는 물질적 조건의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삶의 질 차원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였고 OECD국가들의 행복 수준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정해식·김성아, 2015).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이 삶의 질 측정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생활시간구조, 성별 등에 의한 일과 삶 균형의 국가 간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각 국가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각기 다른 문화의 사회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조사하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는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수집된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신뢰할만한 국제 프로젝트이다. 국내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의 관계를 검증하거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에 대한 다국가 비교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김경희·송리라, 2016; 정선영, 2016). 청년세대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서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은 상호보완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서문기, 2015).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 범위를 충족하는 OECD 회원국과 세계가치관조사 대상국 중 중복되는 11개국(호주, 에스토니아,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터키, 미국)을 선정하여 11개국 청년세대의 일·삶 균형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통합적 관점에서 일·삶 균형 수준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여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가치관 중심 요인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합적 관점에서의 다국가 비교는 청년세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요인을 거시적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높은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수립 등에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년세대의 특성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삶과 자아실현 등에 관심이 높다. 또한 금전과 이미지, 명예와 같은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웃과의 관계, 타인에 대한 이해, 공동체의식과 같은 내재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Twenge, Campbell & Freeman, 2012; Twenge,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세대는 직장선택 기준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장선택의 기준을 조사한 결과 연령대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용안정성을 선택한 중장년층과 달리 청년층은 복리후생과 충분한 여가시간 확보 등 일·삶의 균형이 유지되는 근무환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2018; 이해정, 2012). 실제 최근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워라벨(Work-Life Balance, WLB)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9%에 달하고 있다(에듀동아, 2018).

그러나 이러한 청년세대의 내재적 본질에 반하여 저성장 시대로의 돌입으로 인한 고용침체 여파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러한 심각성이 지속되면서 청년세대의 일·삶의 불균형 상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요즘 한국의 청년세대는 N포 세대로 통칭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여기에 취업과 인간관계 등이 더해진 5포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다수의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N포 세대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경제 불경기, 취업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삶이 불안정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세대로 불리고 있다. 특히 과도한 교육열과 성취지향의 경쟁적인 가치체계 확대, 외동자녀의 일반화에 따라 청년세대들의 사회·문화적 수준 및 일자리 눈높이가 상향 이동되었다. 이에 따라 고학력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업 분야 및 제반 환경과 현실 간의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이규용, 2015). 헬조선, 율로족, 소확행 등의 신조어는 이러한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높은 청년실업률의 상황 속에서 청년세대들의 고충과 좌절감 및 현실 적응을 위한 나름대로의 생활양식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청년세대 문제는 단순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현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주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그 동안의 정책들은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청년 고용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세대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낙관적이지 못한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청년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세대의 삶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의 주체이자 지속가능한 미래의 다른 이름인 청년세대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생활행동으로 구체화 하는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은 사회·문화·경제적인 측면도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치관을 표현하는 삶의 방식은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체계와 생활환경의 관계에서 생활요구를 실현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세대의 가치관은 해당 집단의 생활방식을 설명하는 총

체적인 변인으로, 일-삶의 균형이나 행복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배경을 탐색하는 것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물이 청년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으로서 청년세대의 연령 정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 청년세대에 관한 연령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으며 연구마다 정의하는 청년세대의 연령 범위도 상이하다. 최근 여야 합의안 도출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발의 예정인 '청년기본법안 제정안'을 살펴보면, 청년의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국회뉴스ON, 2018). 그러나 대체로 청년세대의 하한 연령은 국내외적으로 15세로 합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경우 청년의 최소연령을 15세로 제시하고 있고, EU나 OECD에서는 15세부터 29세를, 영국은 10대 전체를 청년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김기현·배상률·성재민, 2018). 반면 국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15세에서 39세 이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와 「고용구조통계조사」에서도 15세 이상의 민간인구를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15세를 청년세대의 하한 연령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의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청년세대의 연령 범위를 15세부터 24세까지로 정의하였다.

2. 청년세대의 행복과 일-삶 균형

청년세대의 행복이나 일-삶 균형은 다른 연령의 인구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인구 규모가 작아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았다(한승헌 외, 2017). 그러나 앞서 살펴본 불안정한 사회구조와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청년세대의 발달특징이나 가치

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청년세대의 객관적 차원의 삶의 모습이나 주관적 차원의 행복감은 문제 중심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30개 국가의 10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 청소년 행복 지수에 따르면, 시민참여, 경제적 기회, 교육, 건강, ICT, 안전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의 행복 수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ldin, Patel & Perry, 2014). 이러한 청년세대의 행복을 설명하는 요인은 개념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객관적 영향 요인으로는 사회적 구학적 특성 중심의 사회계층, 성별, 연령, 건강, 소득수준, 관계적 자원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관적 영향 요인으로는 청년세대 본인의 지각과 판단을 근거로 하는 특성인 심리정서적인 요인, 삶에 대한 기대와 인식, 불확실성, 통제 권한의 부재 등이 포함되고 있다(김지경, 2018; 이명숙, 2015; 한승헌 외, 2017; Goldin et al., 2014). 동시에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청년세대의 행복에 동일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갖고 있는 고용상황이나 거시적인 문화요인 등과 같은 객관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지경, 2018; 이명숙, 2015; 한승헌 외, 2017).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관리적 특성, 일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부분적 혹은 도구적 요소로 접근되고 있는 일-삶 균형 요인을 객관적 조건으로 활용하여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관 요인을 중심으로 다국가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일-삶 균형 수준이 높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일-삶 균형 수준이 낮은 국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OECD, 2016), 이러한 결과는 일-삶 균형과 행복의 유의미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삶의 균형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영국에서 기혼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양립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기반 조정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야기되었다(유홍준·신인철·정태인, 2018). 이는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하여 건강과 휴식, 지역사회활동, 학업 및 취미생활 등 개인의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활동들을 일과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삶에 대한 통제감(Tausing & Fenwick, 2001)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상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김정운 외, 2005; Sirgy & Wu, 2009). 이와 같이 일-삶의 균형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해 왔고 우리의 삶에서 보편화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삶의 균형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Sirgy & Wu(2009)는 기본 욕구(주로 일-가정 영역에서 충족) 또는 성장의 욕구(주로 여가, 성장의 영역에서 충족) 충족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 획득이 어렵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영역 간 균형을 강조하였다. Gröpel & Kuhl(2009) 역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확보는 일과 삶의 각 영역에 적은 시간을 할애할지라도 친밀감, 승인, 수용, 자율성 등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욕구가 다양하게 충족될 때 가능하다고 하여 일-삶 균형과 행복 사이의 또 다른 요인의 작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삶의 구성요소인 일-삶의 균형은 성별, 결혼여부, 연령 등을 막론하고 개인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요구되는 가치로서 최근에는 생애주기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삶의 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Calnan, 2005)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세대의 일-삶의 균형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청년세대에 관한 논의들은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일-삶의 균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지명과 정영금(2018)의 연구에서는 여가의 가치가

중요하게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 중인 청년세대는 대체로 일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수현(2017)의 연구에서도 청년세대가 타 세대에 비해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며, 주관적으로도 여가의 양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대 간 일-삶의 균형을 살펴본 이재완과 강혜진(2018)은 청년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일-삶의 균형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고 이는 일-삶의 균형이 일에서의 역할(role in work)과 가정에서의 역할(role in family) 간의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해정(2012)은 근로자를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로 구분하여 일-삶 균형 지각과 일 가치관의 세대별 차이를 검증하였고 세대 간 차이의 이해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일-삶의 균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측정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다양한 대상의 일-삶의 균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생활의 이분법적 모형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적 시간을 생활 균형의 중요한 축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한(신경아, 2009) 흐름을 참고하여, 청년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의 하루 평균 여가 및 개인유지시간을 활용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년세대의 주요 변인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년세대의 주관적 특성에서 국가 간 차이가 발견되는가?
- 〈연구문제 3〉 일-삶 균형 수준에 따라 구분한 국가 간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차이가 발견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1개국의 청년세대가 갖는 가치관 중심의 주관적 특성과 행복 수준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OECD(2017)가 2014년도 ‘더 나은 삶의 지수’를 토대로 발표한 How is life?

〈표 1〉 11개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124)

구분	성별	연령 (20.48-21.40)	교육수준 (대학 이상=1)	고용지위	
	(남성=1)			(고용=1)	(학생=1)
	M (SD)	M (SD)	M (SD)	M (SD)	M (SD)
호주	.45 (.50)	21.01 (1.81)	.51 (.50)	.67 (.47)	.23 (.43)
에스토니아	.53 (.50)	21.03 (1.97)	.26 (.43)	.42 (.50)	.43 (.50)
독일	.52 (.50)	21.20 (2.07)	.10 (.30)	.43 (.50)	.42 (.50)
일본	.52 (.50)	21.37 (2.04)	.45 (.50)	.63 (.49)	.29 (.46)
대한민국	.46 (.50)	21.40 (1.68)	.90 (.31)	.18 (.39)	.76 (.43)
멕시코	.52 (.50)	20.75 (1.98)	.24 (.43)	.39 (.49)	.24 (.43)
뉴질랜드	.38 (.49)	20.98 (2.02)	.68 (.49)	.52 (.50)	.35 (.48)
폴란드	.51 (.50)	21.35 (1.57)	.14 (.35)	.36 (.48)	.47 (.50)
스웨덴	.44 (.50)	20.48 (1.95)	.13 (.34)	.41 (.49)	.50 (.50)
터키	.53 (.50)	21.01 (2.00)	.30 (.46)	.27 (.45)	.47 (.50)
미국	.49 (.50)	21.25 (1.84)	.52 (.50)	.52 (.50)	.26 (.44)

2017 보고서의 일·삶 균형에 대한 연령 간 불평등 점수를 기준으로 국가를 구분하여 그 국가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였다. 11개국의 연구 참여자는 세계가치관조사를 기준으로 17,549명으로 파악되었고 그 중 OECD에서 활용한 청년연령 15-24세까지의 인구만을 추출하면 2,124명이다. 세계가치관조사와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조사대상국을 모두 충족하는 11개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국인 11개국의 성별 분포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뉴질랜드 응답자 중 여성의 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모든 국가의 평균 연령은 21.01세였으며 국가를 기준으로 한 평균 연령의 범위는 20.48세에서 21.40세로 나타났다. 국가별 교육수준은 학위여부와 상관없이 대학 진학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 응답자들의 대학 이상의 진학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 응답자의 고용지위는 청년세대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상태(상근직, 비상근직, 자영업)와 학생인 경우를 각각 기준으로 놓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상태의 응답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미국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응답자 비율이 높

은 국가는 대한민국, 스웨덴, 터키, 폴란드 순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11개국 청년세대의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로부터 삶의 중요도, 생애목표의식, 행복감,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추출하였고 국가 구분 기준으로 활용한 일·삶의 균형 정도는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변수들의 내용과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 삶의 중요도

삶의 중요도란 세계가치관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살아가면서 각 요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김영빈 외, 2017).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삶의 요인별 중요도 척도는 가족, 친구, 여가, 정치, 일, 종교 등 총 여섯 개 영역을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1-4점),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재코딩하였다.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변수	내용	측정방법	출처
삶의 중요도	가족, 친구, 여가, 정치, 일, 종교 등 다섯 개 영역이 삶에서 갖는 중요도 정도 (당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가?)	1: ‘매우 중요함’에서 4: ‘전혀 중요하지 않음’ 까지 중에서 선택 (재코딩하여 사용)	WVS Database (2014)
생애목표의식	자율, 권력, 쾌락, 박애, 성취, 도전 등 여섯 개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각 가치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	1: ‘나와 매우 비슷하다’에서 6: ‘전혀 나와 다르다’까지 중에서 선택 (재코딩하여 사용)	WVS Database (2014)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지위 등	성별, 교육수준, 고용지위 등은 0-1사이로 재코딩하였고, 연령은 평균값을 측정	WVS Database (2014)
행복감	전반적인 것을 고려한 개인의 행복 수준 평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행복 수준은 어떠한가?)	1: ‘매우 행복함’에서 4: ‘전혀 행복하지 않음’ 까지 중에서 선택 (재코딩하여 사용)	WVS Database (2014)
일·삶의 균형	일·삶 균형에 대한 연령 간 불평등 점수	비청년세대(25-64세) 대비 청년세대(15-24세)의 하루 평균 개인유지 및 여가시간	OECD(2017) How is life? 2017

2) 생애목표의식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Schwartz(2012)의 이론에 근거하여 세계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치를 안전, 동조, 전통, 박애, 보편주의, 자율, 도전, 쾌락주의, 성취, 권력 등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가치 중 청년세대의 가치관으로 분류되어 활용된(김영빈 외, 2017) 자율, 권력, 쾌락, 박애, 성취, 도전 가치만을 사용하여 생애목표의식이라는 단어로 재명명하였다. 세계가치관 조사가 제시한 각 가치에 대한 설명은 자율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의 방법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권력은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아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쾌락은 '많은 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박애는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취는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전은 '재미있는 삶을 위해서는 모험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중요하다' 등이다. 즉 생애목표의식이란 자율, 권력, 쾌락, 박애, 성취, 도전 등의 총 여섯 개 가치에 대한 개인의 동의 정도를 의미한다. 가치 유형별로 한 문항씩 총 여섯 문항으로 측정되었고(1-6점), 본 연구에서는 재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 선정한 11개국 청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한 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지위 등이다. 국가별 조사대상자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고 통제변수로의 활용을 위해 명목변수들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성별은 여성 0, 남성 1로 재코딩하였고, 연령은 평균값을 살펴 보았다. 교육수준은 대학수준 이상(학위 과정과 비학위과정 모두 포함)을 1, 나머지를 0으로 재코딩하였고, 고용지위는 청년세대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상태(상근직, 비상근직, 자영업 등)와 학생인 경우를 각각 기준으로 1, 나머지를 0으로 재코딩하여 활

용하였다.

4) 행복감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단일문항으로 삶의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여 행복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청년세대의 행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역코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일-삶의 균형

본 연구에서는 11개국 청년세대의 일-삶의 균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OECD(2017)가 2014년도 '더 나은 삶의 지수'를 활용하여 발표한 How is life? 2017 보고서의 일-삶 균형에 대한 연령 간 불평등 점수를 활용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일-삶 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동시간과 개인유지 및 여가시간 정도를 파악하였는데, 본 연구는 청년세대가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청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유지 및 여가시간 정도만을 활용하였고, 해당 점수는 비청년세대(25-64세)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15-24세)의 하루 평균 개인유지 및 여가시간 정도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년세대의 일-삶 균형 정도가 비청년세대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삶의 균형 수준을 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ver.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사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및 분산 팽창지수(VIF) 등도 검토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 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청년세대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간 수준의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한국이 유일하게 비청년세대보다 청년세대의 개인유지 및 여가시간이 짧은, 즉 일·삶 균형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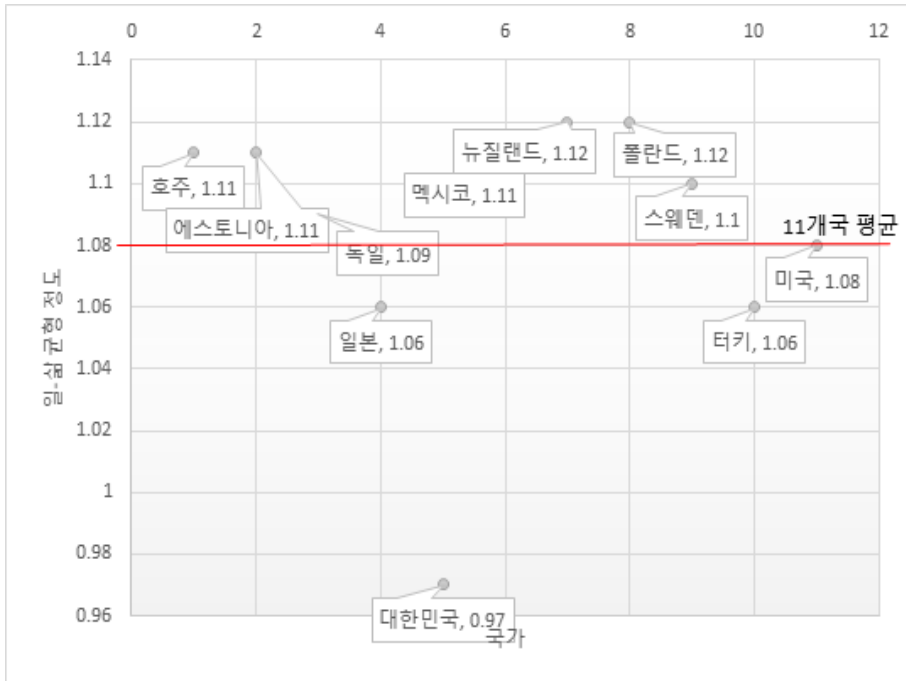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11개국 청년세대의 일·삶 균형 수준

본 연구에서 청년세대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국가 구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11개국 청년세대의 일·삶 균형 수준을 개인유지 및 여가시간을 기준으로 비청년세대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11개국의 평균값은 1.08점(표준편차=.038)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세대의 일·삶 균형 정도가 비청년세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뉴질랜드, 폴란드, 호주, 멕시코, 에스토니아, 스웨덴, 독일 등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였고, 미국, 일본, 터키 등

2. 11개국 청년세대의 주요 특성의 상관관계

11개국 청년세대의 행복과 주관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관관계의 범위가 .80 이상의 상관계수 절대 값은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청년세대의 행복은 가족($r=.192, p<.01$), 여가($r=.080, p<.01$), 일($r=.115, p<.01$), 종교($r=.149, p<.01$), 권력($r=-.094, p<.01$), 박애($r=.130, p<.01$)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림 1> 11개국 청년세대의 일·삶 균형 정도

〈표 3〉 11개국 청년세대의 행복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구분	가족	친구	여가	정치	일	종교	자율	권력	쾌락	박애	성취	도전
친구	.212**											
여가	.069**	.259**										
정치	.099**	.141**	.107**									
일	.181**	0.03	.085**	.183**								
종교	.221**	-.078**	-0.04	.148**	.169**							
자율	0.01	.126**	.108**	.100**	.054 [†]	0.03						
권력	-.093**	.125**	.068**	0.00	-.072**	-.112**	.194**					
쾌락	-0.03	.075**	.137**	-0.03	0.04	-0.04	.189**	.312**				
박애	.178**	0.02	-.050 [†]	.146**	.095**	.295**	.209**	-.048 [†]	.111**			
성취	.081**	.056 [†]	0.02	.082**	.136**	.097**	.236**	.262**	.235**	.280**		
도전	-0.03	.135**	.092**	0.02	-0.02	-0.04	.276**	.258**	.242**	.119**	.250**	
행복	.192**	0.04	.080**	0.04	.115**	.149**	0.03	-.094**	0.04	.130**	0.03	-0.04

[†] $p < .05$, ** $p < .01$, *** $p < .001$.

3. 주요 변인들의 국가별 차이

11개국 청년세대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들의 수준과 국가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년세대의 행복 수준은 국가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멕시코, 스웨덴, 뉴질랜드, 폴란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한국 청년세대의 행복 수준은 총 11개국 중 불과 10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세대의 행복 수준이 생애발달주기에서 노인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승윤·이정아·백승호, 2016; 한승헌 외, 2017)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행복 수준의 향상이 시급한 것을 엿볼 수 있다. 국가별로 삶의 중요도를 영역별로 파악한 결과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가족과 일의 영역에서는 멕시코의 청년세대가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 여가 영역에서는 스웨덴 청년세대가, 정치영역은 일본 청년세대가, 종교 영역은 터키의 청년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특성만을 살펴본 결과 정치 영역에서 2위, 친구와 일 영역에서 3위, 여가 영역에서 4위, 종교 영역에서 5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가족의 중요성 영역에서 10위를 나타내 점차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생활방식 보다는 독립적이고 개인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11개국 청년세대의 생애목표의식을 파악한 결과 자율성과 박애 및 성취 영역에서는 터키 청년세대가, 권력과 쾌락 영역에 대한 중요성은 독일 청년세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도전 영역에서 1위, 성취 영역에서 2위로 나타났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쾌락 영역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세대에게서 도전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성향과 현재를 즐기는 특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자율이나 박애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11개국 청년세대 주요 변인들의 국가별 차이

구분	삶의 중요도										생애목표의식				
	행복감	가족	친구	여가	장치	일	종교	자율	권력	쾌락	박애	성취	도전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호주	3.26(.75)	3.85(.40)	3.69(.54)	3.40(.56)	2.33(.75)	3.18(.59)	2.12(1.09)	4.62(1.09)	3.00(1.26)	3.93(1.23)	4.56(1.15)	4.31(1.35)	4.13(1.41)		
에스토니아	3.17(.52)	3.85(.40)	3.71(.52)	3.51(.63)	1.90(.75)	3.22(.84)	1.75(.87)	4.20(1.25)	3.54(1.27)	4.27(1.21)	3.92(1.02)	3.76(1.19)	3.95(1.29)		
독일	3.18(.61)	3.69(.54)	3.67(.53)	3.37(.61)	2.18(.81)	3.34(.73)	1.86(.96)	4.45(1.16)	3.93(1.41)	4.82(1.04)	3.98(1.15)	4.52(1.15)	3.70(1.41)		
일본	3.24(.60)	3.80(.44)	3.64(.56)	3.54(.61)	2.72(.79)	3.36(.72)	1.54(.80)	3.76(1.46)	2.39(1.13)	3.43(1.25)	3.09(1.23)	3.53(1.24)	2.84(1.47)		
대한민국	3.11(.57)	3.79(.52)	3.67(.57)	3.39(.60)	2.58(.80)	3.44(.71)	2.28(1.09)	4.22(1.23)	2.85(1.34)	4.72(1.24)	3.83(1.37)	4.57(1.25)	4.31(1.21)		
멕시코	3.66(.53)	3.97(.17)	3.22(.75)	3.25(.80)	2.28(.96)	3.72(.69)	3.10(.95)	4.21(1.39)	2.26(1.39)	4.42(1.36)	4.65(1.18)	4.32(1.48)	3.34(1.72)		
뉴질랜드	3.33(.55)	3.92(.27)	3.63(.60)	3.37(.56)	2.14(.81)	3.21(.67)	2.10(1.09)	4.41(1.10)	2.76(1.24)	3.67(1.34)	4.39(.90)	4.22(1.38)	4.14(1.37)		
폴란드	3.28(.49)	3.84(.47)	3.48(.58)	3.36(.60)	2.05(.81)	3.53(.66)	2.89(.95)	4.54(.95)	3.22(1.17)	3.91(1.19)	4.47(.91)	4.41(.95)	4.07(1.24)		
스웨덴	3.36(.61)	3.83(.47)	3.80(.49)	3.57(.58)	2.37(.98)	3.36(.72)	1.72(.94)	4.69(1.20)	3.04(1.52)	4.53(1.35)	3.87(1.48)	3.86(1.43)	4.00(1.39)		
터키	3.10(.81)	3.92(.36)	3.56(.59)	3.36(.67)	2.52(.95)	3.28(.85)	3.41(.87)	4.81(1.10)	3.77(1.46)	4.45(1.18)	4.77(1.12)	4.75(1.15)	4.07(1.44)		
미국	3.21(.71)	3.82(.53)	3.52(.65)	3.29(.69)	2.29(.90)	3.24(.76)	2.73(1.08)	4.29(1.31)	2.83(1.35)	3.54(1.30)	4.46(1.24)	4.18(1.29)	3.82(1.36)		
짐단차이	22.00 ^{***}	8.85 ^{***}	20.39 ^{***}	5.40 ^{***}	11.52 ^{***}	12.92 ^{***}	96.28 ^{***}	10.39 ^{***}	37.91 ^{***}	24.15 ^{***}	30.75 ^{***}	15.12 ^{***}	15.22 ^{***}		

* $p < .05$, ** $p < .01$, *** $p < .001$.

4. 청년세대 행복에 대한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일-삶 균형 수준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11개국을 세 개로 구분하였다. 평균값 1.08 점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군에는 호주, 에스토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독일 등이 포함되었고, 평균값 이하의 수준을 갖는 두 번째 국가군에는 일본, 터키, 미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비청년세대 대비 일-삶 균형이 불평등하게 나타난 한국을 하나의 군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국가를 구분하여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삶의 균형 수준이 높은 국가의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1 단계에서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결과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인 경우와 학생인 경우 모두가 행복감과 유의미한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일-삶 균형 수준이 높은 국가의 청년들은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자가 아닌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에 행복감 정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영향변인 모두를 투입한 결과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족, 종교, 권력, 박애, 도전 등이 파악되었다. 즉 청년세대가 생활영역 중 가족과 종교 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고 생애목표의식 중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다. 반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재미있는 삶을 위해서는 모험과 위험을 무릅쓰는 것 등에 대한 가치에 동의할수록 행복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연령 집단인 경우 일 측면에서 승진보다는 의미있는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사회에서 지향하는 것과 일치하는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혜정, 2012; 정선영,

2016).

일-삶 균형 수준이 높은 국가와 대비되는 일-삶의 균형 수준이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인 국가의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생활영역 중 가족과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삶을 위해서는 모험과 위험을 무릅쓰는 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청년일수록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그 동안 도외시 되어왔던 청년세대에 초점을 두고 국제사회 청년세대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 차원에서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지표인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 중 중복되는 총 11개국(호주, 에스토니아,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터키, 미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다국가 수준의 청년 세대의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과 담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총 11개국의 청년세대가 영위하는 일-삶 균형 정도를 비청년세대와 비교해 본 결과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나라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일-삶 균형을 개인 유지 및 여가시간으로 이해하였는데, 실제로 OECD 국가 중 한국의 청소년 평균 수면시간은 미주·유럽, 뉴질랜드 청소년에 비해 짧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메디칼업저버, 2019), 이러한 경향이 아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남희(2018)는 균형 있는 생활은 행복과 삶의 질의 구성요소로서 충분한 수면시간과 자유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표 5〉 일·삼 균형 수준에 따라 구분한 국가별 청년세대 행복에 대한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일·삼 균형이 높은 수준의 국가				일·삼 균형이 중간 수준의 국가				일·삼 균형이 낮은 수준의 국가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통계 변수	성별 (기준:남성)	.031	.017	.094 ⁺	.052	-.025	-.011	-.024	-.010	-.099	-.060	-.162	-.098
	연령	-.032 [*]	-.069	-.028 ⁺	-.060	-.031	-.053	-.036	-.062	.068	.138	.042	.085
	교육수준	.187 ^{***}	.088	.149 [*]	.070	-.030	-.013	-.017	-.007	.025	.009	.094	.034
	고용	-.111 ^{**}	-.123	-.079 [*]	-.088	-.018	-.016	.018	.016	-.252	-.240	-.178	-.170
	학생	-.150 ^{***}	-.161	-.092 [*]	-.099	-.049	-.042	-.054	-.047	-.108	-.114	-.060	-.063
	가족			.085 ^{***}	.083			.171 ^{**}	.151			.136 ⁺	.184
	친구			.010	.011			.078	.064			-.047	-.047
	여가			.040	.046			.127 [*]	.109			.059	.061
	정치			-.011	-.012			.049	.043			-.078	-.082
	일			.056 ⁺	.059			-.027	-.025			-.094	-.104
생애 목표 의식	종교			.133 ^{***}	.142			.098 ⁺	.084			.010	.012
	자율			-.002	-.003			.049	.043			-.028	-.034
	권력			-.066 [*]	-.072			.009	.008			-.009	-.009
	쾌락			.047	.051			-.001	-.001			-.014	-.016
	박애			.073 [*]	.076			.041	.037			.082	.105
	성취			.050 ⁺	.056			-.068	-.057			-.003	-.003
	도전			-.065 [*]	-.073			-.059	-.051			.268 ^{**}	.262
	Constant	2.518(.05)		2.174(.05)		.393		2.999(.000)		-1.812		-1.240	
	F	4.104 ^{***}		6.819 ^{***}		.774		.880		.806		1.355	
	R ²	.02		.10		.003		.08		.03		.15	

⁺ p<.10, * p<.05, ** p<.01, *** p<.001.

반면,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폴란드, 멕시코, 호주, 에스토니아,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는 11개국의 평균보다 높은 일-삶 균형 수준을 보였다.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에 따르면 일-삶 균형이 높게 나타난 일곱 개 국가 중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OECD, 2017), 이를 통해 전체는 아니지만 일-삶 균형과 행복의 유의미한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었다.

둘째, 청년세대의 삶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에 대한 국가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삶의 중요도를 영역별로 파악한 결과 가족 및 일 영역에서는 멕시코, 친구 및 여가 영역에서는 스웨덴, 정치 영역에서는 일본, 종교 영역에서는 터키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정치 영역과 일 영역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결과의 일부는 전통적-합리적, 생존-자기표현이라는 두 가지 축을 활용하여 국가를 문화적으로 범주화한 Inglehart & Welzel(2014)가 제시한 문화지도에 의해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지도에 의하면 멕시코는 가족, 유대, 종교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국가이며, 스웨덴은 가족중심 가치 및 물질적 가치와 대비되는 합리적인 가치와 자기표현 가치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국가로서 삶의 중요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일본의 청년세대에게서 정치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부분은 일본 청소년은 한국과 중국 청소년이 주변인에 대한 신뢰를 친구와 선후배 관계까지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대통령, 국회의원 등 사회에 대한 신뢰까지 포함하는 것과 연결해볼 수 있다(오정아·이은경, 2013). 그리고 생애목표의식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도전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영역 간 비교에서는 쾌락이라는 가치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세대에게서 사회적인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집단주의 가치관보다 개인과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

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다(손동현·홍경남·백송이, 2013).

셋째,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일-삶 균형 수준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일-삶 균형 수준이 높은 국가의 청년세대의 행복은 가족, 종교, 권력, 박애, 도전 등의 요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세대가 가족과 종교를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일에 의미를 부여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고, 돈과 같은 물질적 가치와 도전 가치에 동의할수록 행복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Schwartz(2012)에 따르면 박애, 권력, 도전의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지 혹은 타인의 안녕과 이익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가치를 조직화하면, 권력과 도전의 가치는 자기 이익에 집중된 자기고양적인(self-enhancement) 가치로, 박애는 자기초월적인(self-transcendence) 가치로 유형화된다. 해당 가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초월적인 가치인 박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 자기중심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권력, 도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대상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gg et al., 2005).

반면 도전 가치는 한국 청년세대에게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즉 한국 청년세대에게 재미있는 삶을 위해서 모험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의 가치는 행복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한국 청년세대의 삶의 인식과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격특성 중 하나인 개방성이 의미 있는 변인으로 확인된 김지경(2018)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경험이나 문화적·지적 자극 등을 의미하는 개방성이 높을수록 한국의 청년세대는 본인의 삶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며 행복감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청년세대의 연령이나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한국 청년세대가 다른 국가의 청년세대보다 진학 수준이 높고 학

생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가치관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후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다국가 비교를 통해 청년세대의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청년세대의 행복을 유도하는 실효성 높은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수립에 활용할 만한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대상적 특성, 국제지표가 갖는 변인의 제한성 등으로 인하여 행복에 대한 영향변수를 주관적 차원으로 한정하여 논의하였는데 이로 인해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행복 전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행복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행복에 대한 1차적 분석으로서 객관적 지표의 수치 비교를 통한 표면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향후 주요 국가의 국가 간 정책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일-삶 균형과 행복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확대된 연구가 수반되기를 바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청년세대의 행복은 개인적인 차원과 더불어 그들이 당면한 사회 전반에 걸친 결핍의 해소와 자원의 제공이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이를 위한 다음의 함의와 시사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세대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삶의 균형을 위해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생애목표의식 중 박애가 행복과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한국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분의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정규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한국의 20대는 스스로를 세계시민으로서 생각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외국인과 함께 생활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인식과 실천에서의 모순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박정현·이은복, 2015), 실천 역량 제고를 구체적인 교육 주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으로서 OECD가 제시한 일-삶 균형 정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일-삶 균형과 행복의 관계를 예측해보기는 하였으나, 청년세대의 일-삶 균형을 측정함에 있어 아직까지 특화된 경험적 연구가 누적되지 않은 관계로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년세대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일-삶 균형 요인이나 행복과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일련의 질적, 양적 연구가 연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보다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청년세대를 보낼 수 있도록 현재 청년세대의 특성과 상황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청년세대들은 고용불안정에 따른 취업절벽과 고령화사회진입에 따른 사회적 책무 등의 다양한 부담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년세대가 생애발달 주기에 적합한 발달과업들을 무리 없이 수행하며 자신들의 욕구에 맞는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교육적,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경희·송리라(2016). 민주주의 의식과 젠더 의식의 군집 유형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세계가치관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6(2), 3-39.
- 2) 김기현·배상률·성재민(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청년 니트(NEET).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 김문길·이주미(2017).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44, 20-37.

- 4) 김영빈 · 김동규 · 김소현 · 박가열 · 오민홍 · 장현진 · 정윤경(2017). 직업세계와 직업정보 탐색 지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5) 김정운 · 박정열 · 손영미 · 장훈(2005).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효과성. 여가학연구, 2(3), 29-48.
- 6) 김지경(2018).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 한국사회정책, 25(3), 209-245.
- 7) 김진욱 · 고은주(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 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 8) 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201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9) 도남희(2018).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분석을 통한 아동의 시간 활용 제안. 이슈페이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10) 박정현 · 이은복(2015). 글로벌 5개국 20대의 가치관 비교. LGERI 리포트.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18835>
- 11) 서문기(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삶의 질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사회학, 49(1), 111-137.
- 12) 손동현 · 홍경남 · 백송이(2013).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13) 손영미 · 박정열(2015).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조직, 지역사회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국가비교연구: 한국, 일본, 영국 기혼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51-74.
- 14) 손현일 · 권혁기(2018). 일과 삶의 균형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3(5), 77-87.
- 15) 신경아(2009).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노동시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 176-212.
- 16) 양지명 · 정영금(2018). 청년 취업 1인가구의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연구, 2018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73.
- 17) 유홍준 · 신인철 · 정태인(2018). 일 · 여가의 변화와 행복 복지. 과주: 집문당.
- 18) 오정아 · 이은경(2013). GGobi를 이용한 한중일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요인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769-783.
- 19) 이규용(2015).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노동리뷰, 124, 15-30.
- 20) 이수현(2017). 청년 여가정책의 필요성 연구: 청년세대의 여가자원 분포 특성 검토를 통하여. 여가학연구, 15(3), 71-93.
- 21) 이명숙(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 22) 이승운 · 이정아 · 백승호(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23) 이재완 · 강혜진(2018). 워라벨과 삶의 만족 -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267-291.
- 24) 이혜정(2012). 다수준 분석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연구:세대별 일의 가치와 제도 및 지원분위기의 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5) 이혜정 · 유규창(2013).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노동정책연구, 13(4), 1-31.
- 26) 전지원(2017). 시간균형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잠: 다국적시간연구(MTUS) 자료를 활용한 한 생애주기별 수면시간 국제 비교 연구. 통계연구, 22(2), 26-52.
- 27) 정선영(2016).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가치관의 영향력: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69-82.

- 28) 정해식 · 김성아(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27, 75-88.
- 29) 한승현 · 임다혜 · 강민아(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 한 국사회 정책, 24(2), 87-126.
- 30) Aboim, S. (2010). Family and gender values in contemporary Europe: The attitudinal gender gap from a cross - national perspective. Portuguese Journal of Social Science, 9(1), 33-58.
- 31) Calnan, S. (2005). Changing the way we work: Towards more flexible form of employment.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uropean Focus, October 2005.
- 32) Fegg, M. J., Wasner, M., Neudert, C., & Borasio, G. D.(2005). Personal values and individual quality of life in palliative care patients.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30(2), 154-159.
- 33) Fischer, R., & Boer, D. (2016). Values: The dynamic nexus between biology, ecology and cultur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8, 155-160.
- 34) Goldin, N., Patel, P., & Perry, K. (2014). The Global Youth Wellbeing Index, CSIS &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 35) Gröpel, P., & Kuhl, J. (2009). Work-life balanc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need fulfilmen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0, 365-375.
- 36) Hakansson C. & Matuska, K. (2010). How Life Balance is Perceived by Swedish Women Recovering from a Stress-related Disorder: A Validation of the Life Balance Model.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17(2), 112-119.
- 37) Inglehart, R., & Welzel, C. (2014). Cultural Map.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
- 38) Leslie, L. M., King, E. B., & Clair, J. A. (2019). Work-Life Ideologies: The Contextual Basis and Consequences of Beliefs about Work and Lif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1), 72-98.
- 39)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40)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7-en.
- 41) Schwartz, S. H. (2012).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https://doi.org/10.9707/2307-0919.1116>
- 42) Sirgy, M. J. & Wu, J. (2009). The pleasant life, the engaged life and the meaningful life: What about the balance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183-196.
- 43) Tausing, M., & Fenwick, R. (2001). Unbinding time: Alternate work-schedules and work-life balanc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2), 101-119.
- 44) Twenge, J. M., Campbell, W. K., & Freeman, E. C. (2012). Generational differences in young adults' life goals, concern for others, and civic orientation, 1966-2009.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1045.
- 45) Twenge, J. M. (2013). The evidence for generation me and against generation we. Emerging Adulthood, 1(1), 11-16.
- 46) 국회뉴스ON (2018.06.01.). 고심 끝에 내놓은 청년기본법, 어떤 내용 담길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8/06/01/71814622-f5ae-4c0a-9c46-d1930c589cfc.html>
- 47) 테일러안 (2018.05.28.). 세대마다 직장 선택기준

- 달라도...“점심 회식은 좋아요”. <https://www.dailian.co.kr/news/view/714651>
- 48) 메디칼업저버 (2019.03.16.).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 부족해 정신건강 위협하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4>
- 49) 에듀동아 (2018.06.19.). 좋은 일자리 기준, ‘일과 삶의 균형’ > ‘연봉’.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180619093131468093

- 투 고 일 : 2019년 02월 28일
- 심 사 일 : 2019년 03월 24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05월 22일